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김 미 영(전북대)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돌봄의 윤리에 내재된 이중성 자각
3. 관계적 주체와 의존의 정당성 인정
4. 저항으로서의 자기 긍정과 자립
5. 맺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저물녘의 황홀」,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친절한 복희씨」속 여성인물들의 돌봄 노동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여성이 돌봄의 의존자가 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돌봄의 수행자일 때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의존자가 되었을 때는 돌봄을 거부당한다. 이는 여성인물들이 돌봄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인식의 변화는 캐롤 길리건의 돌봄 윤리 관점으로 규명할 수 있다. 길리건은 “돌봄”, “관계”, “책임”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인 판단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이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여성이 돌봄 노동을 수행

할 때 겪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극복하고, 젠더 해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할 때 ‘자기 돌봄’의 윤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 인식 방식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했다. 1970년대 작품에는 여성인물이 왜곡된 상호의존적인 돌봄 상황 속에서 억압, 분노를 느끼면서 가부장제에 내재된 이중성을 ‘자각’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면 여성인물이 돌봄 의존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공생관계를 맺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당한 돌봄 의존자로 ‘인정’해 나가는 인식 태도를 보인다. 이때 길리건이 강조한 “개인적인 성실성”에 내재된 솔직함이 돌봄노동 과정에서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할 대응 전략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작품에서는 1970년대 작품에서 다른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작품을 선별해 시대적 경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주목했다. 여성인물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거쳐 ‘자립’의지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시도한다.

이로써 여성인물들이 돌봄 상황에서 시도한 젠더 해체 방식으로 자기 돌봄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은 여성이 돌봄 과정에서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돌봄 윤리를 수행하면서 자기 돌봄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핵심어 : 돌봄노동, 돌봄 윤리, 정체성, 캐롤 길리건, 자기 돌봄

1. 들어가는 말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노인 여성은 주인공이지만 다른 인물들에 의해 소외된 타자로 재현돼 왔다. 그래서 박완서 소설 연구에서 여성을 다른 인물들

과 동등한 존재로 고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¹⁾ 이는 외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여성을 세계 내부로 수용해 재현 가능한 존재로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타자로 배제돼 있던 여성을 전경화²⁾하려 했다는 인식에는 이르렀지만, 정의의 윤리³⁾ 기준에서 타자화 된 여성에 대한 고찰에는 미흡함이 있다. 왜냐하면 “주체에서 타자로의 초점 이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담론화할 때 부각되는”⁴⁾ 돌봄의 윤리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윤리는 돌봄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돌봄의 가치에 근거한 도덕이론⁵⁾인데 지금까지 돌봄은 정의 윤리 관점에서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돌봄 상황에서 돌봄 수행자인 여성이 받아야 할 ‘평등의 원칙’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여성은 돌봄 노동 상황에서 돌봄의 수행자로만 인식돼 왔다. 그래서 “여성에게 부가된 성별노동분업은 여성의 돌봄 노동을 무급화하여,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여성을 열악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을 착취”⁶⁾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돌봄을 정의 윤리로 인식하고자 할 때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방식이 정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의

1) 김양선·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박완서, 김향숙의 중산층 여성문제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제3호, 오늘의 문예비평, 1991;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은하, 「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연구: 1970년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면.

3) 정의 윤리는 공정, 평등, 개인의 권리, 추성적 원칙,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정의 윤리는 경쟁하는 개인의 이해와 권리 사이의 공정한 해법을 추구한다. 그리고 정의의 실천에서 개인적 권리는 보호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며, 처벌은 합당한 것이고, 동등한 대우가 추구된다.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돌봄의 윤리』, 박영사, 2017, 39~40면 참조.

4)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65면.

5) 버지니아 헬드, 앞의 책, 1면.

6) 위의 책, 41면.

문이 남는다.

이런 정의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캐롤 길리건은 여성주의적 관점의 돌봄 윤리를 제안한다. 길리건은 여성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돌봄”, “관계”, “책임”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특징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종속적인 존재를 자처하는 인식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길리건은 여성들의 돌봄 방식에서 나타나는 돌봄 윤리가 “여성 자신의 일방적 희생과 착취로 귀결되지 않는 발달 경로를 드러낸다는 점”⁷⁾을 강조한다.⁸⁾

길리건은 임신중절 여부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여성의 도덕 발달 단계를 정리한다. 그 결과 길리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평등”⁹⁾한 존재라는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돌봄 윤리로 도출해낸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하에 형성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여성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길리건의 연구는 돌봄의 수행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도출해냄으로써 돌봄 윤리를 확장한다.

길리건은 “여성들이 인간관계를 상호적으로 인식하고, 자아와 타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하나만을 돌보는 것은 다른 하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¹⁰⁾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돌봄의 수

7)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현대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130면 참조.

8) 길리건은 생물학적 성 차이를 넘어서서 정의와 돌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는 정의 윤리가 형성되고, 여성에게는 돌봄 윤리가 형성된다는 주장은 ‘젠더의 역사적 반복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윤리인 돌봄 윤리가 남성 윤리인 보편적 정의론을 포괄하는 보편 윤리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정은,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보살핌 윤리: 실천적 판단에서 특수 윤리와 보편 윤리의 전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제11권, 한국여성철학회, 2009, 146면 참조.

9)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184면.

10)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앞의 책, 132면 참조.

행자가 자신이 된다면 자신 또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이 솔직함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그대로 타인과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¹¹⁾을 의미하는 “개인적인 성실성”¹²⁾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로써 여성들은 억제해 왔던 자신의 판단을 표명하고, 자신의 판단에 뒤따르는 책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¹³⁾ 이러한 자기 돌봄의 윤리는 여성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돌봄과 자기 돌봄의 수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박완서 소설은 “이름을 얻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깊은 동감과 연대의식”¹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감과 연대의식은 돌봄의 주체인 여성을 인식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돌봄 수행자로 인식되는 여성은 희생의 주체로 각인되어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인식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박완서는 돌봄의 주체인 여성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소홀히 넘기지 않는다. 박완서는 여성의 서사에서마저 소홀히 다루지는 여성의 돌봄을 공론화하면서 현재화한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자기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여성이 자신의 삶도 돌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돌봄의 성별화에 내재된 돌봄의 가학적인 속성 또한 비판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돌봄의 책임을 자신에게만 전가했던 틀을 깨고 자기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억압부터 해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의 책임은 희생을 담보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을 대하는 돌봄 윤리는 여성의 희생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돌봄의 의미를 재탐색해보고, 다른 관점으로

11)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앞의 책, 132면.

12) 캐롤 길리건, 앞의 책, 245면.

13) 위의 책, 185면 참조.

14) 권명아,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 시대의 고전」,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204면.

돌봄 노동에 접근할 가능성을 탐지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이 화자이면서 돌봄의 주체로 등장하는 작품을 시대별로 선택해서 돌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70년대 작품에서는 여성이 돌봄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억압, 분노를 가부장제에 내재된 이중성을 ‘자각’하는 측면에서 탐색하고, 왜곡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지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작품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에 내재된 돌봄 관행을 비판적으로 내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정당한 돌봄 의존자로 ‘인정’해나가는 인식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길리건이 강조한 “개인적인 성실성”에 내재된 “솔직함”이 돌봄노동 과정에서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할 대응 전략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발표되었지만 돌봄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작품을 선별해 돌봄 인식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이 가부장제의 허구성에 저항해왔던 과정에 주목하면서 자신이 외면해왔던 자신만의 이야기에 관심을 돌리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립’을 시도하는 관점도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젠더 해체를 시도하는 방식과 주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돌봄의 윤리에 내재된 이중성 자각

돌봄 윤리는 “배려, 신뢰, 필요에 대한 응답성, 서사적 어감(narrative nuance), 돌봄 관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돌봄 윤리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이해를 단순히 경쟁적으로 보지 않고 중요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돌봄 윤리에서는 “신뢰, 연대, 상호관심, 동감적 응답의 가치”가 우선한다.¹⁵⁾

15) 버지니아 헬드, 앞의 책, 39~40면 참조.

그렇기 때문에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서로의 안녕을 위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관계”¹⁶⁾에서 형성된다. 돌봄은 노동의 한 유형이지만, 노동 그 이상이다. 오히려 돌봄 노동은 관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의 수행자와 의존자 사이에서 목격되는 억압과 방기의 이중성을 돌봄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완서는 소외된 이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을 작품의 중심에 세우려 시도해 왔다. 그는 여성인물들을 통해 불평등한 삶을 재현해 왔는데, 그 모습은 돌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 행위로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행위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돌봄 주체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사랑노동¹⁷⁾으로 거의 이득을 보지 못하며, 사실상 재정적·사회적·감정적으로 손실을 보기도 한다.¹⁸⁾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제도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산업화로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개인은 사회 변화를 감지하면서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는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1979)에는 당대 사회의 인식과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여성이 돌봄 상황에

16) 버지니아 헬드, 앞의 책, 76면.

17) 사랑 노동은 물려받거나 선택한 의존관계 내지 상호의존관계에서 생기는 높은 상호의존성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말한다. 이 일은 애정, 헌신, 배려에 의해 시간, 에너지, 자원을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행된다. 사랑 노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무관계로 가시화되며 부모-자식 관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케슬린 린치,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엠플러스, 2016, 75~76면.

18) 위의 책, 76면.

서 충돌하는 양상이 제시되고 있다. 청희는 자신의 회사를 경영할 만큼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가정으로 복귀하면 사회적 자아인 경영자 청희가 아닌, 돌봄 수행자인 아내, 엄마, 며느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여성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 밖에서 임금 노동을 해도 가정에 복귀하는 순간 여성은 다시 가사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단지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자녀가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 머무는 장소를 관리하는 존재¹⁹⁾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을 양립 불가능한 갈등 상황으로 내몰고, 사회 활동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장치로 돌봄 상황을 제시한다.

그 여자는 밖에서 바쁜 일에 쫓기는 틈틈이 집에 자주 전화를 해서 송 부인과 통화를 했다. 송 부인은 그럴 때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순자란년이 맛있는 건 혼자만 먹는다고 고자질을 했다. 그리고 일찍 들어오라고 조른다. 늦으나 이르나 추우나 더우나 그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송부인은 문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던 송 부인이 반색하는 걸 보기 위해 그 여자는 달콤하고 물렁물렁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걸 잊은 적이 없었다.²⁰⁾

위 인용문 속 청희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청희는 돌보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르다는 자각도 같이 한다. 이는 청희로 표상되는 여성에게 부가된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가정 내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소설에서 여성에게 부가된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돌봄을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억압 기제로 작동한다.

19) 이반 일리치, 노승영 옮김,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 2015, 199~200면 참조.

20)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6, 26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잘났어도 여자는 여자니라 하는 준엄한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 여자가 그때까지 배운 방법은 무조건 부정되고 시어머니의 방법을 익히고 신봉해야 했다. (중략) 송 부인은 이 세상 모든 여자의 스승이 되고도 넘칠 만큼 똑똑했었다. 그러나 한 번도 왜? 하는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스승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첫날 제일성 속에 있었다. 여자는 여자니라. 여자 중에서 오직 남자의 어머니만이 홀로 위대했다. 그런 송 부인을 인철은 또 얼마나 잘 거들었던가. “매력 없어”

이런 뼈아픈 말로 미처 송 부인에 의해 마멸되지 않은 그 여자의 본디 모습을 다스렸었다. “여자는 여자니라”와 “매력 없어”는 전혀 판사람의 목소리면서 일맥상통하는 공모자의 목소리가 되어 그 여자를 주눅들게 했었다.²¹⁾

위 인용문에는 청희를 통제하려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공모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청희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지금의 ‘효부’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그녀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청희는 이미 가정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의식적 주입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행해왔고, 자발적으로 돌봄을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달래서 잠자리에 들게 해도 헛수고였다. 어떻게든 아들 며느리 곁으로 돌아올 구실을 만들어낸다.

“어머야, 대문 걸었냐?”, “어머야, 빨래 걸었냐?”, “어머야, 장독 덮었냐?”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 설새없이 안방을 드나들었다.

“이거 아범 거자?”

하면서 잔다란 물건들을 안방으로 집어들이기도 했다. 빨려고 내놓은 와이셔츠나 양말도 집어들이고 주전자나 우산 구두까지 집어들었다.

밤새도록 해도 끝날 성실지 않게 송 부인이 안방을 드나들 수 있는 구실은 무궁무진했다.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방을 맴돌고 엿보기 위해 송부인의

21)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80~81면.

눈은 밤이 깊을수록 초롱초롱해졌다.

그럴 때 송부인의 눈은 서너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었다. 아들 며느리의 침실을 엿보고 휘방놓고 싶은 시어머니의 유구하고 숙명적인 악의가 서너 살 먹은 친진난만과 만나 자제력을 잃은 상태는 견잡을 수 없이 성적(性的)이었다.²²⁾

위 인용문에 묘사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회귀한 모습이다. 청희의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요구할 줄 아는 인물이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능동적인 의존자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의식에는 당대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청희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의 기저에는 이처럼 시어머니의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며느리인 청희는 시어머니에게 그림자 돌봄²³⁾을 행하는 모성의 대용물이라 할 수 있다. 청희가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행위는 모성 돌봄의 행위와 일치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돌봄의 수준은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청희는 단순한 노동에서부터 ‘사랑’까지 제공해야 하고, 그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청희는 사랑노동에 종속되어 행위의 자율성까지 억압당한다.

결혼이후 가정에서는 청희에게 ‘순수한 관계’²⁴⁾로서의 헌신을 요구한다.

22)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26면.

23)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을 고용의 그늘에 가려진 무급 노동이자, 산업노동에 종속된 노동이라고 말한다. ‘그림자 노동’의 대표적인 예는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다. 이는 “임금 노동을 위한 재생산, 재충전 및 자극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 노동’의 개념에 돌봄을 수행하는 행위까지 적용가능 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해 ‘그림자 돌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이반 일리치, 앞의 책, 28면 참조.)

24) 순수한 관계는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순수한 관계는 그것이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각 개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당사자 모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신과 희생을 거부한 행위에 비판을 가한다. 청희를 향한 비난은 청희가 돌봄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고, 강요된 돌봄에 침묵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청희는 강압적으로 형성된 순수한 관계에서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희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의 기저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집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 취하는 행위라는 학습된 윤리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희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라는 도덕적 명령(특히 여성에게 주어지는)은 사랑노동에 반영된 문화적 기대²⁵⁾에서 기인한 결과라 하겠다.

청희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돌보면서 자신이 실천하는 돌봄이 숭고한 사랑이자 희생으로, 결코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는 것²⁶⁾이라 인정하며 모성적 돌봄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공모에 부당함을 느껴 저항하고자 한다. 청희가 처한 딜레마는 가족 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여한 며느리와 아내의 환영(幻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율성을 억압할 것인지, 종속적인 삶을 거부할 것인지의 문제 속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내적 갈등은 여성이 “사회구조적 조건에 의해 자율성을 억압받는”²⁷⁾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지의 충돌을 드러낸다. 청희의 이런 사고 과정은 돌봄 윤리에서 여성들이 관계성을 기본으로 독립성을 고민하는 관계중심적인 자아관에 닿아 있다.²⁸⁾

이 작품에는 헌신적인 어머니/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고, 수행해야하는

두가 생각하는 한에서만 지속된다.”(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경』, 새물결, 2003, 103면.)

25) 캐슬린 린치, 앞의 책, 184면.

26) 정진우 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한울, 2012, 49면.

27) 남궁명희,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실천과 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2면 재인용.

28)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앞의 책, 128~129면 참조.

여성의 내적 갈등이 돌봄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다. 박완서는 가부장제의 강압적이고, 구속적인 돌봄 상황에서 겪게 되는 남편,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돌봄 주체인 여성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여성을 사랑노동에 종속된 존재로 구속하려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돌봄 노동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로써 박완서는 여성주체가 가부장제의 돌봄 윤리 속에 내재된 이중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는 여성 인물이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세계가 “점잖고 화평스러운” 것으로 “포장”된 세계였다는 자각 이후의 행동 방식에 집중한다. 이 소설은 남편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와 함께 집을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남편이 부재한 집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당뇨병”과 “고혈압”, “허기”, “노망기”로 인식되며 시어머니의 “병적인 식욕”은 ‘나’의 억압되어 있던 욕망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데 죄책감을 느끼며 서둘러서 점심을 준비했다. (중략)

나는 어머니가 손으로 생선을 집어서 새하얀 틀니로 뼈까지 오지직오지직 씹어서 상 귀통이에 뒤통 뺨고, 비린 손가락을 쪽쪽 빠시는 걸 지켜보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자리 잡은 그분에 대한 미움을 의식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잖고 고상하고 도덕적인 것에 짓눌려 부피 작은 것이었지만 압축공기처럼 다부지고 위협스러운 것이기도 했다.²⁹⁾

위 인용문에는 남편이 알 수 없는 일로 집을 나간 후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자신을 챙길 것을 종용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 있다. 사랑노동에 종속되어 있는 나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은근히 남에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으로 표상되었던 가부장제의 위

29) 박완서,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15, 341~342면.

장이 남편의 부재와 함께 벗겨지면서 1인칭 서술자인 ‘나’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남편이 자신에게 규정해온 젠더 위계를 어머니에게 적용해 자신에게 덧씌워져 있는 환영³⁰⁾을 벗어버릴 도발을 감행한다. 어머니의 식욕으로 촉진된 대치 상황은 “곰국”과 “고기”, “잡곡 안 쉬고” 담은 “한 사발”의 진지, “케이크” 등 시어머니에게 해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정점을 찍는다.

나는 남편이 없고 나서 처음으로 생기발랄해졌고,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건 바로 증오였다. 시어머니가 맹렬히 미식을 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 내부에서 왜화를 강요당한 채 괴롭게 또아리 틀고 있던 그분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홀시어머니가 외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때부터 접어두었던 묵은 증오까지가 활갯짓을 하면서 되살아나는 기쁨에 몸서리쳤다. 증오야말로 가장 확실한 삶의 보람이었다.³¹⁾

이 소설은 ‘나’가 현모양처, 효부 며느리로 호명된 배역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자각하며 그 배역에 대한 위반을 시작하는 시점을 주목한다. 돌봄의 주체인 ‘나’가 인식해 온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이 젠더 환영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가부장제의 폭압성에 분노를 표출한다. 그 분노는 증오로 환원되고 여성 주체에게는 반란의 계기가 된다. 이처럼 돌봄 주체의 반란은 자신의 내면에 봉인돼 있던 분노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인해 왔다. 그런데 평온이 깨진 틈으로 돌봄의 폭압적 속성이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주체의 욕망을 발견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그가 인식한 돌봄에 대한 환멸은 삶에 대한 자각으로 연결된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30) 젠더 환영이야말로 젠더화된 주체의 특수성을 조건 짓고 구성하는 것이다. 젠더는 동일시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런 동일시는 필연적으로 환영 안의 환영, 즉 이중적 환영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9, 31~32면.

31) 박완서,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350면.

억압해왔던 자기 검열의 허위성을 직면하는 주체의 과감한 공격성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무게를 증오로 드러낸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이는 것, 아이들에게 시어머니의 흉을 보며 자신의 속마음을 교묘히 주입시키는 것, 남편이 아끼는 분재를 바깥마당에 동댕이치는 행위 등은 자신이 지금까지 직시하지 않았던 위장된 “화평”에 대한 도발이자 조롱이다. 이는 ‘나’가 현모양처 배역을 “자랑스러워”하던 자신과 “포장”으로 은폐하려고만 했던 가족의 폭압성을 향한 반격을 의미한다.

작품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정 내에 도사리고 있는 가부장제의 이중성을 폭로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인물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허점이 가부장의 부재중(청희 남편의 외도, 남편이 정보기관에 연행)에 가시화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여성이 그 틈을 계기로 위장된 채 억압적으로 작동했던 가부장제의 진실과 직면하고, 동시에 젠더 위계의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 변곡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박완서 소설이 돌봄 수행자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돌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청희는 ‘집나움’, ‘나’는 “화평”이라는 위장을 깨는 행위로 가부장제와 절연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작품은 여성인물이 사랑노동에 종속된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왜곡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자각해나가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3. 관계적 주체와 의존의 정당성 인정

결혼한 여성이 행하는 돌봄은 보편적으로 ‘사랑의 행위’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돌봄을 ‘노동’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노동’으로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다. 그 기저에는 여성이 돌봄을 전담해왔고,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

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돌봄을 비용을 지불하는 노동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급 돌봄노동은 더 수용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돌봄의 주체가 여성이면서 노인인 경우에는 억압의 고통이 배가된다.

이 장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겪던 1980년대 작품에 주목한다. 1980년대 작품에서는 여성에게 강요된 젠더 규범을 '자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돌봄 행위를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인물이 포착된다. 이들은 여성의 서사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주체로도 고려되지 못한 노년의 하층 계급 여성이다. 이 여성들이 부당한 돌봄 노동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나가는 과정을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과 「저물녘의 황홀」(1985)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노동 현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경제적·감정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 중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여성은 계급적 차별 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임금과 무임금 노동에 노출된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자 하면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해 감정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들이 돌봄 수행 현장에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는 이유는 이들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자립 의지는 정당하게 수용되지 못하고, 집단 내에서 침입자로 오인 받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돌봄 행위를 수행하는 여성은 계급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구해야 하지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있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에는 결혼을 전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억압과 소외가 나타나 있다. 작품에는 자신의 몸을 노동력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인물인 성남택이 등장한다. 성남택은 돌봄을 제공할 때 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구두 계약으로 아파트를 보장받고 돌봄노동을 시작했다.

성남택은 자신을 고용한 진태 엄마와 구두 계약을 하고,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영감님을 돌보기로 한다. 성남택은 ‘열세 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생각으로 무급 노동을 시작했는데, 영감님의 사망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는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결혼했던 여성은 재가(再嫁)라는 방식을 활용해 신분 상승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도구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성의 안정적인 생활은 남성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만 보장된다. 남성의 사망 시 여성의 지위는 공격을 받는다. 재혼한 여성을 향한 공격의 도구로 재혼 여성에 대한 낙인과 젠더 불평등이 반영된 혐오 발언이 동원된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뭘?”

“마나님 걸음걸이 보면 모르냐? 이렇게 엉덩이를 맹렬히 돌리면서 걷는 걸음걸이 말야. 이렇게.”

여자는 몸소 흉내까지 내는 듯 다시 숨이 끊어질 듯 자지러진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방 안의 성남택에게 그 웃음은 모닥불을 끼얹는 듯이 사정없이 화끈거렸다.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암튼 너희들도 봤으니까 짐작하지? 그런 걸음걸이는 아직도 그 방면에 왕성하단 표시야.”³²⁾

동네 여성들은 성남택이 빈곤³³⁾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을 ‘엉덩이

32) 박완서,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저녁의 해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4, 문학동네, 2016, 197면.

33) 빈곤은 계급적·성적으로 위계화 된 한국사회의 중심질서에서 배제된 채 주변부에 위치지어진 여성들의 곤경을 물질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이자 이들이 간직한 결핍과 결락의 표시이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창비, 2005, 252면.

깃'과 '첩질'로 폄하하고, 그녀가 행한 돌봄 행위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속물로 낙인찍어 제도권 밖으로 몰아낸다. 이때 동네 여성들은 자신들의 속물성³⁴⁾을 위장하기 위해 성남택의 돌봄을 수치스러운 행위로 평가절하하고, 성남택에게 혐오를 전가한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여성들은 혐오 발언으로 성남택을 속물로 낙인찍어 그의 돌봄 행위 또한 세속화한다. 성남택은 자신이 당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남택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³⁵⁾하는 돌봄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의 대상이 된 성남택은 하층 계급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항변할 힘조차 갖지 못한다. 여성인물들의 혐오 발화 속에는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체제의 영향력이 반영돼 있다.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발화 속에는 재가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성적 대상의 유입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혐오 발화로 표출된다. 즉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재혼 여성을 견제 또는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혐오 발화를 통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층 계급 여성은 억울해도 자신에 대한 평판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다만 성남택으로 표상되는 하층 계급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인정으로 돌봄 과정에서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동안 너무 오래 편하게 지냈지만 차츰 왕년의 걸음걸이가 살아났다. 입을 일 자신까지 생기면서 어느 틈에 엉덩이를 신나게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도 스스로 그걸 느꼈고, 어제 여편네들한테 들은 해괴한 흉이 생각났다. 천하 잡년들! 엉덩이짓이라면 그저 잠자리에서 그 짓 하는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몸

34)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9~60면.

35) 홍용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영적 성숙 연구 :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과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의 영혼 돌봄 개념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6면.

편한 것들이 나의 엉덩이짓이야말로 얼마나 질기고 건강한 생명의 리듬이란
걸 어찌 알까보냐는 비웃음을 그녀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 했다.³⁶⁾

위 인용문에서처럼 성남택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인물이다. 성남택은 일하기 위해 움직였던 “엉덩이짓”을 정당한 노동의 결과라고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성남택은 “자신만은 예외적 존재가 되어 자기 이외의 여성을 타자화하여 여성 혐오를 전가하는”³⁷⁾ 방식으로 자신을 혐오했던 이들에게 대응한다. 이런 대응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적인 성실성”만이 돌봄 노동 과정에서 훼손된 존엄성을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성남택이 자신의 몸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억압적인 지배 담론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제시한다.

여성이 돌봄 수행자일 때는 사랑노동에 종속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의 의존자일 때는 몸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의 부재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몸체에 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봄 수행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면 「저물녘의 황홀」 속에서는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낸다. 이 작품은 노년 여성에게 ‘자기 돌봄’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은 가부장제로 편입하기 위한 통과의례를 겪으면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침묵으로써 자기 안에 문을 수밖에 없다.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부터 해리(解離)³⁸⁾되는 상태

36) 박완서,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210면.

37)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252면.

38) 캐롤 길리건은 해리(분리·불안)에 대한 저항에 주목한다. 그리고 소녀들이 성인
이 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을 깨닫는 동시에 저

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물녘의 황홀」 속 인물은 그 해리에 “솔직함”으로 저항하고자 한다.

「저물녘의 황홀」은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한 것만 같은 고독감과 세계로부터 축출된 것만 같은 좌절감”³⁹⁾을 느끼는 노년의 화자가 화초 할머니의 현실 대응 방식을 떠올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성남덕과 「저물녘의 황홀」의 화초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모두 재가를 선택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성적 능력을 상실한 병든 남성 즉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재혼했다. 이들의 선택에는 섹슈얼리티의 제공이 아닌 돌봄노동 즉 돌봄만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돌봄을 노동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 ‘순수한 관계’는 소멸된다. 그런데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성남덕과 「저물녘의 황홀」 속 화초 할머니는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돌봄을 수행한다. 작품 속 화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대화가 단절되자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이후 화초 할머니도 중풍에 걸려 쓰러지는데, 이는 중풍을 가장한 ‘피병’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 화초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질병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할아버지와 ‘순수한 관계’를 맺는다.

처음엔 지극한 연민으로 화초 할머니를 불쌍해하던 할아버지가 차츰 자신의 닳은 꼴로, 잃은 반쪽으로, 애지중지하기 시작했다. 이제 친할머니가 통역을 안 해주어도 두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온종일 버벌거렸고, 젊은 연인들처럼 온종일 손잡고 바라만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모양이었다.⁴⁰⁾

향하는 모습을 의미 있게 관찰한다. 캐롤 길리건, 김문주 옮김, 『담대한 목소리』, 생각정원, 2018, 24면 참조.

39)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6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12면.

40) 박완서, 「저물녘의 황홀」, 『저녁의 해후』, 박완서 단편소설집4, 문학동네, 2016, 360면.

「저물녘의 황홀」속 화초 할머니의 대응 방식은 돌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작품 속 화자는 “온몸으로 사람 속의 깊고 깊은 오지(奧地)에 뛰어들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하조댁”이라고 그의 돌봄 방식을 평가하지만, 이는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존자의 고통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 즉 화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공생(共生)관계”⁴¹⁾를 맺으며 돌봄을 수행했던 것이다. ‘나’는 화초할머니의 돌봄 방식을 통해 돌봄 수행자 또한 언제든지 돌봄의 의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돌봄의 윤리를 인식한다. 이는 돌봄 윤리 자체가 일방적이고 이타적이 아닌 관계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선택’의 행위라는 것을 증명한다. 박완서 소설은 돌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돌봄 제공자와 의존자를 동시에 고양시킨다는 인식의 확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⁴²⁾

화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할머니가 중풍에 걸리는 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순수한 관계로 전환된다. 이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계약 관계를 맺었지만 친밀성이 형성되면서 동등한 관계가 되고, 외적 규범과 관습의 통제를 벗어난다. 오히려 결혼 제도에 예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화초 할머니의 돌봄 방식은 신체적 돌봄 외에 정서적 돌봄 방식을 취함으로써 돌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또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인 화초 할머니의 ‘집 떠남’은 하층민 여성이 돌봄의 수행자이자 의존자가 될 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경우 계급적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지금까지 빈곤층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림자 돌봄을 수행했던 여성의 삶이 외적 억압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성남댁은 비공식적 혼인 관계

41) 버지니아 웰드, 앞의 책, 89~90면.

42)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153면.

에서 사랑노동을 수행했지만 공식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가족에게서 배제된다. 성남택은 중산층의 이중성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재확인한다. 또한 「저물녘의 황홀」 속 화초 할머니는 상호 의존적 돌봄을 경험하면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돌봄 윤리를 실행하고, 자발적인 태세 전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구축한다. 「저물녘의 황홀」 속 노년의 화자는 화초 할머니가 젠더 해체를 감행한 모습을 전유하면서 ‘자기 돌봄’의 가능성을 수용한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돌봄노동에 내재된 폭력성에 대항한다.

작품에서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비판적인 주체가 등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작품 속 비현실적인 설정과 인물의 반응, 대응 방식이 돌봄노동에 내재된 폭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박완서가 형상화한 작품 속 여성 인물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노동 수단으로 활용해 자발적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비정상적인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성·수동성을 거부한다. 이들은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몸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기존 가부장제의 가치에서 빠져나온다. 박완서는 두 작품에서 가난하지만 결코 종속적이지 않은 새로운 여성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의 주요한 저항적 움직임 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처리하고자 했던 남성적 권위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박완서는 자기 돌봄의 윤리를 실행하는 여성인물을 제시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돌봄의 수행자로 이용당하기만 하는 여성의 삶에 반기를 들고 지배문화에 공격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남성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돌아보고, 그 몸을 긍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을 창조해 체제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완서는 ‘모성의 서사’⁴³⁾에 반기를 들고 돌봄 수행에서 요구되는 헌신과 사랑노동의 폐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돌봄의 상황에서 자기 보존적인 삶을 선택하는 인물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 돌봄 윤리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43) 한국여성연구소, 앞의 책, 249면.

4. 저항으로서의 자기 긍정과 자립

「친절한 복희씨」(2006)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1979)과 발표 시기는 다르지만 유사한 서사와 구조를 보이고 있다.⁴⁴⁾ 이 두 작품은 여성이 돌봄의 주체가 돼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문제 삼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자기 발견’(「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정체성의 회복과 자립’(「친절한 복희씨」)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친절한 복희씨」는 가난한 여성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층 계급 여성의 삶이 돌봄 상황에 유입되는 과정과 주체의 자각을 문제 삼는다. ‘나’는 “가난한 집을 나와 도시로 상경한다. 그녀가 도시로 나온 목표는 버스차장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꿈꿨던 사회생활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꿈을 접는다. 대신 방산시장의 가게에 딸린 안집에서 일하는 식모로 취직한다.

그런데 식모로 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가게 주인이었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후 그의 아내가 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훼손되는 몸이 된다. ‘나’는 자신의 훼손된 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결혼’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부장제도가 허용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꾼다.

“놀라셨죠. 제 잘못이에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한테 닭을 잡으라고 했으니.”

열쁜 사람이 순식간에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이상한 가족 구성원 속으로 시집온 후 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 시늉을 하고 누워있고, 노인이 행주치마 두르고 부엌으로 나

44) 김윤정,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혐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240면. 김윤정은 이 논문에서 「친절한 복희씨」와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여성 혐오의 구조적 순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 외손자 생일상을 차렸다.(중략)

모질지 못한 건 천성이다 쳐도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인다는 건 사실과 달랐지만 그렇게 알려지자 행운이 뒤따랐는데 굳이 아니라고 우길 까닭이 뭐 있겠는가.⁴⁵⁾

위 인용문은 ‘나’가 닭을 잡다 실패하고 기절했던 사건을 계기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면이다. 위 인용문에서처럼 ‘나’는 남편의 발화로 인해 “얼쁜 사람”이었다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으로 규정되면서 “착한 여자”라는 젠더 배역을 부여받는다. ‘나’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나’는 “척”을 하며 자신의 배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후 ‘나’는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젠더 배역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남편을 조종한다.

착각도 길들이면 진짜 같아지는 법이다. 착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의 변태를 어떻게 살의(殺意)없이 참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이가 의기소침해하던 더욱 용을 쓰든 말든 절대로 교성을 지르지 않은 적도 있었다.(중략) 그러나 그가 시키는 대로 교성을 지르면서 치르는 요란한 정사 끝에는 마치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과로한 막노동꾼처럼 씻고 말고 할 겨를 없이 진창 같은 잠자리에서도 곧장 단잠에 푹아떨어질 수 있었다.⁴⁶⁾

‘나’는 하층 계급 여성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임금 노동자의 신분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나’는 강제적으로 순결을 상실하고 첩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 편입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임금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전담하게 된다. 그와 결혼하고 자신이 꿈꾸던 사랑은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나’는 무임금의 그림자 돌봄을 행복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

45)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7, 문학동네, 2015, 229~230면.

46) 위의 책, 244면.

로를 위장해야 했다.

위의 인용문에는 위장한 모습으로 자신이 꿈꾸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젠더 배역을 수행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나’는 “나의 몸이 잠시나마 물오른 한 그루 박태기나무로 변신하는 기적과 환희”를 맛보게 해줬던 대학생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설정한다. 남편은 ‘나’를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잘 하게 만드는 동력으로써만 인식한다. 화자인 ‘나’도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남편을 이용한다.

이때 ‘나’는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를 노동이라 인식함으로써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력을 제공받겠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나’의 인식 방식은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모멸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은 친밀성이 부재한 채 탈주를 욕망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결혼 초기에 ‘나’는 몸의 귀중함을 알게 해준 청년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은 활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집은 마음속의 “신전”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자신과 남편, 자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시작으로 돌봄의 윤리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자기 돌봄의 서사를 쓰기로 결심하고부터 부정적인 현실을 대신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나’가 인식하는 세계가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폭력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는 자신의 세계가 부정적인 세계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를 바꾸는 것으로 자기 돌봄의 서사를 진행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발전된 돌봄의 윤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집은 환멸을 유발하는 노동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녀들이 장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찾아오기로 약속하고 방문하는 집은 의무적인 돌봄이 “공평”하게 거래되는 공간이자 ‘분리의 폭력’⁴⁷⁾이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자식, 며느리, 손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방

문하고, 손자들은 부모와 약속한 규칙대로 애정표현을 하고는 사라진다. 남편과 둘만 남은 집은 여전히 불평등한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살의(殺意)와 같은 “잔인한 충동”을 억눌러야 하는 억압의 공간이다.

이렇듯 ‘나’가 꿈꿨던 친밀성의 공간은 구축되지 못하고, 사랑노동에 종속된 채 강요된 헌신에 복무해야 하는 고통만 강화되어 있다. 이 소설은 친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부가 된 ‘나’를 통해 여성이 돌봄 수행에서 겪는 고립감을 재현한다. 그리고 불평등하게 형성된 가족관계가 돌봄 주체에게는 부담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숨결이 섞이지 않는 공기를 마실 생각에 손이 다 떨릴 정도로 조금”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직면하지 않고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남편을 향한 환멸을 회피한 채 살아간다. 그런데 ‘나’의 이런 회피는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은폐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만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약이라고 여기까지 힘들게 온 노인 헛걸음을 시키고 그래요.”

“비싸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요.”

그러면서 약사가 내민 종이엔 낮익은 그의 빼뽀뽀한 왼손 솜씨로 그린 ‘정력제비아그라’ 그런 글씨들이 징그러운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중략)

나는 무슨 말이 더 나오기 전에 약국 앞을 황급히 벗어났다. 내 딸보다 어린 약사의 능멸과 동정 어린 시선의 가시권에서 벗어나려고 달음질쳐 우리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꺾어들자 비로소 모닥불을 뒤집어쓴 것처럼 화끈한 치욕감이 온몸을 엄습한다. 이런 치욕보다는 차라리 분신의 고통이 건디기 쉬울 것 같았다. 죽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살의가 극에 달한 채 집 안으로 돌진했다.⁴⁸⁾

47) 김경연, 「노년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징후들」, 『어문논집』 제82호, 민족어문학회, 2018, 168면.

48)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249~250면.

위 인용문에서처럼 ‘나’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약국에 간다. 그곳에서 남편이 “정력제비아그라”를 사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치욕감”을 느낀다. 이 사건으로 ‘나’는 그동안 휘둘려왔던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인식 방식은 오랫동안 숨겨온 ‘생철갑’의 존재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상경하면서 흠쳐온 친정엄마의 ‘생철갑’을 보관하고 있다. 소량만으로도 누구든 죽거나 죽일 수 있다는 약효는 현실과 내면의 부조화에서 오는 자기모멸과 살의를 보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언젠가 끝낼 수 있다는 자기암시는 남편에게서 느꼈던 성적 모멸감을 ‘생철갑’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정력제비아그라”를 찾는다는 것을 약사에게서 듣고, 자신이 암묵적으로 모멸감을 은폐해 왔다는 것을 자인한다. ‘나’는 자신이 의면해 왔던 진실을 마주하며 ‘생철갑’을 강에 던진다. ‘나’는 “죽음의 상자”를 던지면서 그동안 자신을 위장해왔던 젠더 배역도 버린다.

그런데 ‘나’의 행위가 길리건이 제안하는 성숙한 단계의 배려지향적인 윤리관에 해당하는 “자아와 타아 간의 보다 명확한 개별화와 사회적 상호관계의 역학에 대한 발전된 이해”⁴⁹⁾를 보여주는 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나’가 생철갑을 버리는 행위에는 남편을 책임지고, 자신도 돌봄 대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자신을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식 속에 남편을 가두지도 않는 상태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에 포함”⁵⁰⁾시키려는 “보살핌의 의미를 재규정”⁵¹⁾하는 인식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가려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설은 폭력성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자기 죽음’으로 내파하려는 여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나’가 ‘생철갑’을 강에 던지는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돌봄의 과정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적의만 남은 관계를 죽음으로 해결

49)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153면.

50) 위의 책, 178면

51) 위의 책, 178면.

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성찰 또한 제시한다. 오히려 사랑노동에 종속되어 억압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분노를 자기 정체성의 회복과 자립의 도구로 삼아 가부장제의 폭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병든 남편과의 관계는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던 ‘나’에게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다. 성적인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을 향한 혐오에서 그 또한 연약한 생명체라는 인식이 죽음을 품고 다니던 ‘나’에게 “개인적인 성실성”을 인식하게 한다. 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도덕 명령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 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나’는 자기 돌봄의 서사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소설에서는 여성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각성하는 과정에 주력한다.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수동적으로 내면화했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생철갑’을 버리는 행위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 즉 거대담론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자각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외면했던 자신만의 이야기 즉 자기 서사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 소설에서는 개인의 각성, 자기 서사의 재발견과 다시 쓰기의 시도로 거대 담론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개인을 복원해낸다.

그런데 1970년대 작품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2000년대 「친절한 복희씨」에서 재현된 돌봄의 상황은 다른 듯 닮아 있다.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 속 주체의 자기 발견과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 시대의 변화에도 돌봄 제공자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은 닮아있다. 나아가 「친절한 복희씨」에서는 개인의 각성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도 사회적 변화 즉 제도적인 변화가 지원되지 않으면 돌봄의 희생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 박완서는 「친절한 복희씨」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돌봄의 민낯을 변화되지 않은 돌봄 상황을 통해 확인시킨다.

이는 사회에 존속해 있는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박완서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강요되는”⁵²⁾ 돌봄의 대상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인식에 주목했다. 이는 타인을 돌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발화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은 끊임없이 저항해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저항이 돌봄의 윤리를 통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박완서는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한다.

5. 결론

지금까지 박완서 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저물녘의 황홀」,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돌봄 상황을 살펴보고, 여성인물이 돌봄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탐색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불평등은 돌봄 노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여성이 떠맡는 돌봄 노동에는 젠더, 가족 관계, 계급이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돌봄에 있어서의 젠더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를 분석한 2장에서는 사랑노동에 종속된 돌봄 주체가 돌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각각의 작품에서 청희는 ‘집나움’, ‘나’는 “화평”이라는 위장을 깨는 행위로 가부장제와 절연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작품은 여성인물의 행위 방식을 통해 여성이 사랑노동에 종속된 경험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과 분노를 자각하고, 억압된 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이질성을 자각해나가는 과정을 포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52) 캐롤 길리건, 『담대한 목소리』, 24면.

3장에서는 여성이 돌봄 노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차별적인 상황에서 자신 또한 돌봄 의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탐색했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과 「저물녘의 황홀」 속 여성인물은 가족의 경계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두 작품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 여성이 돌봄 대상자와 맺는 ‘순수한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인 성실성”에 내재된 솔직함이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로써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속 성남택이 자기 몸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저물녘의 황홀」 속 노년의 화자가 화초 할머니의 젠더 해체 방식을 전유하면서 자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돌봄 윤리를 인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돌봄의 의미를 재규정함으로써 인식의 성장을 보이는 돌봄 주체를 탐색했다. 「친절한 복희씨」는 가난한 여성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층 계급 여성이 돌봄 상황에 유입되는 과정과 주체의 자각에 주목한다. 이 소설은 폭력성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자기 죽음’으로 내파하려는 여성에게서 가부장제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한다. 박완서는 사랑노동에 억압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분노를 자기 정체성의 회복과 ‘자립’의 도구로 삼아 가부장제의 폭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인식의 성장을 그려냄으로써 자기 돌봄의 서사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부양의 문제를 넘어 돌봄 문제로 의미를 확장해 여성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돌봄의 주체와 의존자 사이의 갈등 관계를 다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박완서 소설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인물이 상호의존적인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자기 돌봄의 윤리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탐색했다. 이로써 주체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완서는 돌봄의 주체가 가부장제와 절연을 단행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제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에 저항하는 태도를 옹호한다. 그리고 여

성 인물들이 돌봄 윤리를 재인식하면서 젠더 해체를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억압으로부터 자기 돌봄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

박완서는 자기 존재를 긍정할 때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부정의 한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바꿀 때 삶을 대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이 갖는 의미는 가부장제의 억압성에 포획된 여성들의 저항의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돌봄의 윤리만으로도 자기 정체성을 견고하게 정립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6.
- 박완서,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16.
- 박완서, 『저녁의 해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4, 문학동네, 2016.
- 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6, 문학동네, 2016.

2. 논저

- 김경연, 「노년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징후들」, 『어문논집』 제82호, 민족어문학회, 2018.
-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 김양선·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박완서, 김향숙의 중산층 여성문제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제3호, 오늘의 문예비평, 1991.
-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6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혐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집 2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 김은하, 「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연구 : 1970년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남궁명희,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실천과 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완서 외,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 버지니아 웰드,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 에바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현대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반 일리치, 노승영 옮김,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 2015.
- 이정은,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보살핌 윤리: 실천적 판단에서 특수 윤리와 보편 윤리의 전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제11권, 한국여성철학회, 2009.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경』, 새물결, 2003.
- 정진우 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한울, 2012.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9.
-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 , 김문주 옮김, 『답대한 목소리』, 생각정원, 2018.
- 캐슬린 런치,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애플러스, 2016.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창비, 2005.
- 홍용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영적 성숙 연구 :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과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의 영혼돌봄 개념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Abstracts】

A Study on Ways of Care Perception Expressed
in Park Wan Seo Novels

Kim, Miyoung

The Study focuses on women's caring labor described in Park Wan Seo's novel 『Beginning of Alive Days』, 『She knows, I know, and Heaven knows』 and 『The Trance of Falling Sun』, 『Kindhearted Bokhee』. Until now, women's caring labor has been recognized natural. However, when it comes to women being subjected to receive caring, they tend to be rejected. Main characters of aforementioned novels are dedicated to caring when they are “provider”, in the name of love, and when they become “receiver” of such care, they are rejected due to family power structure. This serves as an momentum for the female characters to become aware of their identity, questioning their caring relationship.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experienced by women in carrying out their care labor can be examined from Carol Gilligan's perspective on ethics of care. Gilligan says moral judgments centering around “care”, “relationship”, and “responsibility” to make a determination of actions. In addition, she goes further even to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at women are not such the being having obligations only to provide care, but they themselves are also supposed be the object of care. This suggests that the ethics of “self care” could be an alternative when women try to overcome the violence of the patriarchal system they are suffering while carrying out their care labor and seek for the possibility

of gender dissolution.

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to the ways of care perception expressed in Park Wan Seo novels by classifying them into periods. In her novels in the 1970s, female characters are expressed as the ones who 'become conscious' of the duplicity inherent in the patriarchal system while feeling suppression, anger under their distorted and interdependent caring situations. And in the 1980s, female characters show a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that they enter into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ir care dependents based on a trust and 'recognize' themselves as a person entitled to be cared in such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t this moment, the candidness inherent in the 'personal integrity' emphasized by Gilligan works as a counterstrategy to restore the identity damaged in the process of care labor. Lastly, this study sorted her novels out of the ones in the 2000s as the works showing similar in terms of structure to the contents covered in the ones in the 1970s and note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with the passage of the time. Female characters attempt to recover their identity by choosing "self-reliance" through some changes in their perception to embrace their life positively.

Thus, this study was able to find out that those female characters expressed in Park Wan Seo novels acquire the possibility of self care by means of a gender dissolution attempted under their caring situations. Park Wan Seo novels suggest that women can realize the ethics of self care while acknowledging their own existence in their caring process and carrying out interdependent care ethics.

Key words : Caring labor, care ethics, identity, Carol Gilligan, self care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